

관상동맥질환 남녀 노인 환자의 식생활습관 및 혈중 총 호모시스테인 비교

장남수, 류경화*, ¹박시훈, ²조용옥.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, ¹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센터, ²포천 중문의대 내과학교실

혈중 총 호모시스테인의 상승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로 부각되고 있다.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노인의 혈중 총 호모시스테인 및 식생활습관과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. 연구의 대상은 50세 이상의 관상동맥질환군(남자 19명, 여자 14명), 동맥경화위험군(남자 26명, 여자 29명), 정상 대조군(남자 19명, 여자 13명)으로 총 118명이었다. 혈청 호모시스테인의 분석은 HPLC-fluorescence detector를 사용하였다. 남녀 노인의 식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식사량은 여자노인의 경우, 적당히 알맞게 먹는 비율이 관상동맥질환군의 47.1%, 동맥경화위험군의 67.8%, 정상 대조군의 76.9%로 대조군에서 적당히 알맞게 먹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($p < 0.05$) 또한 고기의 기름부분 섭취 정도는 남자노인의 경우, 전부 먹는 비율이 동맥경화질환군의 38.1%, 동맥경화위험군의 38.5%, 대조군의 0%로 동맥경화 질환 및 위험군에서 고기의 기름부분을 모두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.($p < 0.05$) 취침전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은 여자 노인의 경우 동맥경화질환군의 47.0%, 동맥경화위험군의 21.4%, 대조군의 7.7%로 동맥경화질환군에서 취침전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($p < 0.05$) 그 외에 1일 식사횟수, 아침 식사 유무, 식사속도, 식품기호도, 간식횟수 및 종류, 외식횟수 및 종류 그리고 커피 섭취횟수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. 남녀 노인의 식품 섭취 상태를 식품군별로 분석한 결과, 남자노인의 경우 동맥경화위험군보다 대조군의 담황색 채소 및 차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, 여자 노인의 경우 동맥경화위험군보다 대조군의 당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.($p < 0.05$) 남녀 노인의 생화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, 남자 노인의 경우 동맥경화위험군보다 대조군의 혈중 총 중성지방 수준 및 공복시 혈당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($p < 0.05$) 또한 여자 노인의 경우 동맥경화 질환 및 위험군보다 대조군의 혈중 총 중성지방 수준이 낮았고, 동맥경화질환군보다 동맥경화위험군 및 대조군의 공복시 혈당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($p < 0.05$) 반면, 남녀 노인 모두 동맥경화 질환 및 위험군보다 대조군의 혈중 HDL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았다.($p < 0.05$) 그 외에 남녀 노인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creatinine 수준은 각 군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. 평균 혈청 총 호모시스테인은 남녀 노인 모두 동맥경화질환군(남자 $16.8 \mu\text{mol/L}$, 여자 $13.0 \mu\text{mol/L}$), 동맥경화위험군(남자 $15.7 \mu\text{mol/L}$, 여자 $12.9 \mu\text{mol/L}$), 대조군(남자 $14.1 \mu\text{mol/L}$, 여자 $10.5 \mu\text{mol/L}$)순으로 나타났다. 또한 남녀 노인을 비교한 결과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혈청 총 호모시스테인이 유의적으로 낮았다.($p < 0.05$) 고호모시스테인혈증($\geq 14 \mu\text{mol/L}$)을 지닌 사람의 비율은 총 동맥경화질환군의 44.1%, 총 동맥경화위험군의 50.0%, 총 대조군의 36.7%이었다.